

중장년층의 소득계층별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Old Age Preparation and Life Satisfaction by Income Levels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겸임교수 정 주 원*
동국대학교(경주) 가정교육학과
강 사 조 소 연**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Joowon J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Gyoungju)
Lecturer So Yeon Ch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It also examines and compares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iddle-aged at various income levels.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was the third additional wave and the fourth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1,723 middle-aged (age 50-64) individuals. The data analysis methods included the chi-square 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ld age preparation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old age preparations (physical, emotional, social, financial) and life satisfaction show meaningful relationships among the income levels. Third, old age preparation was found to have different meaningful impact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income lev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verify the degre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ld age prepara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different impact factors relating to old age

* 주저자 : 정주원(jjwchc@dongguk.edu)

** 교신저자: 조소연(soyeon@dongguk.edu)

preparation for life satisfaction among the income levels.

Key Words : 노후준비(Old age Preparation),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소득계층 (Income level),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I. 서론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 14~20%),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 인구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기대수명 또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4.7년 증가하여 남자는 77.6년, 여자는 84.5년으로 나타나고 있어(통계청, 2013),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비노인인 중장년층의 경우 은퇴 이후에 약 20-30여 년의 시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을 맞이하고 있으며, 부모세대의 부양과 자녀세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노후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1년 국민연금공단 연구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 가운데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1/3은 경제적 노후준비와 건강준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노후준비 대책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이소정, 2009).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공적 보장에만 의존하여 노후생활을 보내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노후준비는 노년기 생활 전반에 대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준비인 재무적 부분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부분 즉 정서·사회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의 준비도 필요로 한다(보건복지부, 2012). 노후생활이 단순히 생의 연장이 아닌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는 질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안정감, 신체적 건강함 그리고 정서·사회적 지지라는 균형적 노후준비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만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방향 또한 전환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2012)는 ‘노후불패’를 발간하여 노후에 필요한 6가지 영역인 ‘일자리,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건강관리, 연금, 노인주거복지시설, 귀농귀촌’에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노후준비 방법은 대부분 노후자금 마련에 치중되어 있어 노후준비를 경제적 노후준비에 국한하여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김동배·정규형·이은진, 2012). 노후소득보장과 필요노후생활비 준비가 기본적인 노후생활과 다양한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구조 면에서 하위층에는 노후보장 급여와 중위·상위층에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퇴직준비와 개인연금 준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창제, 2011). 그러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준비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노후시기로 접어들며 다가오는 신체 건강상의 문제, 가족관계 약화와 사회적 역할상실로 발생하는 정서적 우울과 사회적 고립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권석만·민병배, 2005; 최혜경, 2011).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맥락에서 노후준비를 바라보고자 할 때,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신체적 준비, 정서·사회적 준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보다 선별적 노후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구조별 노후실태 조사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파악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실태 조사는 전체 대상자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경우가 많았으며, 집단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한 연구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접근과 베이비부머 세대, 특정 직업군에 대해 파악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 2009; 이승신, 2012; 김미령, 2013; 정순희, 2015), 소득계층별 노후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소득계층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며(김미혜, 2010; 백은영, 2011), 각종 정책과 제도적 실행에 있어 핵심 기준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노후준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연령(65세 이상)에 가장 근접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노후준비 정도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후 고령화 정책 방향에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5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3차 부가조사(2010)에서 조사된 노후준비의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 영역과 4차 본조사(2011)에서 조사된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관계 파악과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을 우선 소득계층별로 하위, 중위, 상위로 분류하여 각 집단의 영역별 노후준비 실태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별 노후준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노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방안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후준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개발한 노후준비지표에 의하면, 50대의 노후준비 정도는 57.0점, 60대는 53.1점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기대여명은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나 이에 반해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가족부양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여 행복하고 성공적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다(박창제, 2008). 즉 노후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다양한 영역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노후준비를 신체적, 경제적 및 정서적 노후준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나(안현선 외, 2009; 김수봉, 2010; 김주성·최수일, 2010; 전귀연·배문조, 2010), 최근에는 활동이론(윤종주, 1994)에 입각하여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여가에 대한 준비 또한 노후준비로 보고 있다(양민희, 2009).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에서 조사된 노후준비를 이용하여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서·사회적 준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 노후 준비는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판단에 따라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독립

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주성·최수일, 2010). 최근 통계청(2014)은 90대까지 노년기간을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요구되는 노후생활비가 60대 월 196만 원, 70대 월 123만 원, 80대 월 77만 원, 90대 월 49만 원으로 총 5억 3000만 원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 기본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자산 가치를 차감하면 실제 필요한 노후자산 규모는 3억 5000만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노인을 위한 경제적 복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중년층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노후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해야 하는 만큼 중년기부터 미리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강유진, 2005). 그러나 실제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전국 45~64세 남녀를 대상으로 경제적 준비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32.4%가 전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이소정, 2009). 경제적 준비는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되므로 노후준비에 있어 중요한 기제가 된다.

다음으로 신체적 준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적 노후준비는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의미한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1)’에 따르면 건강이 노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 노후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제한시키고 운동과 참여를 감소시키며, 질병 상태에 놓일 위험성과 함께 주위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 건강

상의 문제는 노인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체적 문제는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게 한다(최혜경, 2000). 그러나 신체적 노화는 개인적인 노력과 준비에 따라 노화 속도와 신체적 쇠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홍석태, 2008),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지내기 위해서는 신체적 준비가 필요하다. 차승은과 한경혜(2003)는 개인 간의 건강수준 편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시기가 중년기라고 언급하면서 신체적 노후준비를 중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노년기를 위한 정서·사회적 준비에 대해 살펴보면, 정서·사회적 준비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굳건히 하거나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활동을 많이 하여 사회적 영역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이정화, 2009).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도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노년층은 퇴직, 배우자 사별, 자녀의 독립, 지인의 죽음으로 직업 역할상실과 가족 역할상실을 겪게 되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적인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권석만·민병배, 2005). 실제로 노년기 우울과 관련된 연구에서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배우자 사별과 사회적 지원망의 결여가 나타나고 있다(Hooyman & Kiyak, 2005). 특히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의 정서적 상실감과 사회적인 고립은 노후생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므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년기부터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망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가활동, 교육, 일 등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신승희, 2010).

이와 같이 노후생활의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노후준비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영역을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로 나누어 소득계층별 노후준비 정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신이 생애에 대하여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현재 상황 대해 만족하며, 현실적으로 욕구가 충족된 상태이다(최숙희·송선희, 2014).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생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권중돈·조주연, 2000).

이는 기대하는 생활양식이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주관적 만족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기대하는 생활양식은 노년기에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모습이 되며, 충족 여부는 노후준비에 의해 현실 속에서 구체화 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신체적, 정서·사회적 준비가 현재 상태에서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충족 여부는 현재 생활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만족스럽게 느끼는 삶의 만족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중돈과 조주연(2000)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삶의 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정도, 일상생활 동작능력, 경제활동 참여여부, 사회단체 활동참여도, 친구수로 나타났으며,

김주성과 최수일(2010)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이나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 건강검진 등으로 신체적 노후준비를 하거나 노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수봉(2010)의 연구에서는 건강, 가족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및 여가생활 만족도 등이 노인의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여가생활과 행복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한 김경미, 류승아와 최인철(2011)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활동내용 면에서는 친목활동, 스포츠 여가문화 활동,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참여,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 단체 활동 등의 사회참여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 그리고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현재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느끼는 주관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소득계층별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유무, 자녀유무, 경제활동유무, 가계총소득을 통제변수로 두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소득계층

계층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구주의 교육, 직업, 소득 뿐 아니라 이웃의 특성, 주택의 가치, 개인적 성취, 가치관, 계급의식 등이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은정·이은영, 2002). 이중 가장 대표적인 계층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가계소득으로써 가계소득의 수준에 따라 계층을 분류하는 것이다. 소득계층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인 가계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이진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하여 설정된 범주 안에 있는 일정소득의 집단을 통해 소득계층을 구분하게 된다(한수진, 2004). 소득계층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선강(2014)은 가계총소득에 따라 4분위로 나누어 계층을 분류하였는데, 1분위 즉 하위 25%에 속해 하는 집단을 하위소득계층으로 분류하였고, 상위 25%이내에 해당하는 4분위에 속하는 집단을 상위소득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2분위와 3분위에 속하는 집단을 소득 중위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이성림(2002)은 가계총소득을 10분위로 구분하여 소득계층을 분류하였는데, 1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소득집단을 하위계층으로, 4분위에서 7분위까지를 중위계층으로, 8분위에서 10분위를 상위계층으로 구분하였다. 한수진(2004)과 김용기, 강성원, 이동원, 박준, 문외솔과 최홍(2010)의 연구에서는 가계총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였는데,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위계층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위소득의 50%이내의 집단을 하위계층, 150%초과 집단을 상위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현재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분위를 기준으로 가계소득계층을 구분하거나 국민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있다(류상영·강석훈, 1999).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득계층에 따른 노후준비(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득계층에 따른 노후준비(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소득계층별 노후준비(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의 3차년도 부가조사와 4차년도 본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은 전국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221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8,600여 가구원을 대상으로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격년마다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 사이에는 부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0년에 실시한 3차 부가조사는 노후준비와 노후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2011년 실시한 4차년도 본 조사에서는 개인적 특성, 노후생활, 삶의 만족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 부가조사의 노후준비관련 문항과 4차 본 조사의 삶의 만족도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3차 부가조사와 4차 본 조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 중 만 5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 1,72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23)

구분		N (%)	구분		N (%)
성별	여성	1,071 (62.2)	배우자유무	유	1,497 (86.9)
	남성	652 (37.8)		무	226 (13.1)
교육수준	<고졸	1,032 (59.9)	자녀유무	유	1,696 (98.4)
	=고졸	544 (31.6)		무	27 (1.6)
	>고졸	147 (8.5)	경제활동 유무	유	1,006 (58.4)
하위	383 (22.2)	무		717 (41.6)	
총가계소득 (단위: 천원)	중위	886 (51.4)		50대	869 (50.4)
	상위	454 (26.4)	연령	60대(64세이하)	854 (49.6)
Mean(SD)		34,200.3(25682.7)	Mean(SD)		59.1 (3.6)

3. 주요변수구성

1)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과정(박창제, 2008)으로써 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 3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측정문항은 규칙적 생활, 운동, 수면을 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정기적 건강진단을 받는지, 건강을 고려한 식생활과 만성질환을 예방, 조절하고자 노력하는지 등의 질문을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한 Cronbach' α 값은 .80으로 신체적 노후준비를 측정하기에 적절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경제적 준비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측정문항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저축이나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역모지기, 개인연금 등의 노후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1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 α 값은 .74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였다. 정서·사회적 준비는 노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 상실이나 축소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죽음 등의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정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측정문항은 노후에 정서·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교, 사회단체, 지역사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가족, 친구 등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등의 질문을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 α 값은 .79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였다.

2) 삶의 만족도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의 삶의 만족도는 자신 삶의 질에 대해 만족스러운 정도로써,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지, 가족, 부부, 자녀, 친구 등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지, 경제적 수준, 주거

상태,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는지 등의 질문을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한 Cronbach' α 값은 .83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하였다.

3) 가계소득계층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소득계층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계총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중위소득 50~150%를 중위계층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위소득의 50%이내의 집단을 하위계층, 150%초과 집단을 상위계층으로 분류한 소득계층의 분류방법을 사용하였다(한수진, 2004).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가계총소득은 1년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합으로 측정되었다. 본연구의 가계총소득의 중위소득은 29,200,0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위계층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위소득의 50%이내의 집단을 하위계층, 150%초과 집단을 상위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소득계층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계층 즉 50~150%에 속하는 집단은 51.4%(886명)였으며, 하위계층은 22.21%(383명), 상위계층 26.4%(454명)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TATA 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와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노후 준비(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른 노후준비(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와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와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소득계층별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소득계층별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노후준비(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신체적, 정서·사회적, 정서적 노후준비는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모든 소득계층에서 신체적,

<표 2> 소득계층별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구분	노후 준비									삶의 만족도			
	신체적			정서·사회적			경제적			하위	중위	상위	
	하위	중위	상위	하위	중위	상위	하위	중위	상위				
노후 준비	신체적	1	1	1									
	정서·사회적	0.48***	0.50***	0.43***	1	1	1						
	경제적	0.16***	0.16***	0.14***	0.39***	0.36***	0.35***	1	1	1			
	삶의 만족도	0.20***	0.17***	0.15***	0.24***	0.21***	0.25***	0.21***	0.11***	0.18***	1	1	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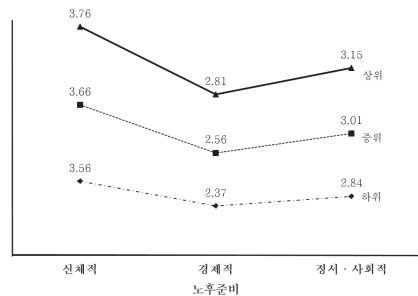
정서·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잘 이루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2. 소득계층에 따른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소득계층에 따른 노후준비(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가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노후 준비의 전 영역과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계층의 하위, 중위, 상위의 집단에 따라 모든 노후준비영역인 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계층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는 상위 3.76, 중위 3.66, 하위 3.56로 소득계층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는 상위 2.81, 중위 2.56, 하위 2.37로 소득계층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역시 상위 3.15, 중위 3.01, 하위 2.8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1>. 이는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정서·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신체적 준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서·사회적 준비, 경제적 준비 순으로 노후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의 수준이 상위계층에서도 2.81로 중간(3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중장년층의 경제

적 노후준비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박용두(2015)의 연구에서도 노후준비가 신체적, 정서·사회적, 경제적 준비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와 일치한 결과로써, 현재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신체적 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서·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위 3.68, 중위 3.47, 하위 3.26로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소득계층이 높은 집단, 즉 상위계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주성·최수일, 2010)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소득계층별 노후준비정도

<표 3> 소득계층에 따른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구분	소득계층			전체 (n=1,723)	F-value
	하위 (n=383)	중위 (n=886)	상위 (n=454)		
	M (SD)	M (SD)	M (SD)		
노후 준비	신체적	3.56 (.57) a	3.66 (.53) b	3.76 (.51) c	14.54***
	경제적	2.37 (.66) a	2.56 (.67) b	2.81 (.65) c	
	정서·사회적	2.84 (.67) a	3.01 (.66) b	3.15 (.62) c	
삶의 만족도	3.26 (.49) a	3.47 (.51) b	3.68 (.46) c	3.48 (.51)	75.46***

* p < .05 ** p < .01 *** p < .001

3. 소득계층별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차이를 보였다. 소득 하위계층의 경우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배우자유무($\beta=.14$), 자녀유무($\beta=.07$), 경제활동참여여부($\beta=.09$), 신체적($\beta=.12$), 경제적($\beta=.10$), 정서·사회적($\beta=.12$) 노후준비로 나타났다. 즉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중장년층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경제적 활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노후준비의 전 영역인 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 중위계층인 경우,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beta=.06$), 교육수준($\beta=.05$, $\beta=.04$), 배우자유무($\beta=.11$), 자녀유무($\beta=.08$), 경제활동참여여부($\beta=.15$), 노후준비의 하위영역 중 신체적($\beta=.09$), 정서·사회적($\beta=.15$) 노후준비로 나타났다. 즉 소득 중위계층은 연령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미만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과 비교하여 고등학교와 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체적,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

<표 4> 소득계층별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소득계층									
	하위			중위			상위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항)	2.20	.27		1.32	.40		1.23	.45		
통계 변수	연령	.00	.00	-.02	.00	.00	.06*	.00	.00	-.05
	여자(남자=0)	.02	.03	.01	-.02	.03	-.02	.00	.03	.00
	교육수준(고졸미만=0)									
	=고졸	-.02	.05	-.01	.06	.03	.05*	.10	.03	.09**
	>고졸	.03	.08	.01	.11	.06	.04*	.17	.04	.12***
	배우자유무(무=0)	.14	.03	.14***	.13	.03	.11***	.12	.04	.08**
	자녀유무(무=0)	.22	.08	.07**	.39	.12	.08**	-.01	.16	.00
	경제활동여부(무=0)	.10	.03	.09**	.15	.02	.15***	.05	.03	.05
	가계총소득(ln)	.01	.02	.01	.06	.04	.04	.18	.04	.13***
	노후준비									
신체적	.10	.03	.12***	.08	.02	.09**	.03	.03	.03	
경제적	.07	.02	.10**	.00	.02	.00	.01	.02	.01	
정서·사회적	.08	.02	.12**	.11	.02	.15***	.12	.02	.16***	
F	14.40***			17.31***			19.13***			
R ²	.12			.10			.13			
adj.R ²	.12			.10			.12			

* $p < .05$ ** $p < .01$ *** $p < .001$

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beta=.09$, $\beta=.12$), 배우자유무($\beta=.08$), 가계총소득($\beta=.13$), 정서·사회적($\beta=.16$) 노후 준비로 나타났다. 즉 소득 상위계층은 고등학교 미만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과 비교하여 고등학교와 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가계의 총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노후 준비가 잘 이루어질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정화, 2009; 최혜련, 2012; 고선강, 2014)과 같이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주요 요인임을 의미한다.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노후준비의 영역별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하위 집단의 경우 신체적 노후준비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 순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계층의 경우 신체적 노후준비에 비해 정서·사회적 준비의 상대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상위계층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만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소득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준비의 하위영역은 차이를 보였으며, 그 영향력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가 하위계층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반면, 소득계층 중위, 상위계층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유의한 영향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3차 부가조사 및 4차 본 조사를 이용하여 50세-64세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소득수준별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와 생활만족도는 소득수준의 하위, 중위, 상위 계층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정서·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삶의 만족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객관적 경제적 지표를 나타내는 소득수준이 노후준비 정도와 삶의 만족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득 상위계층에서는 모든 영역의 노후준비 정도가 평균을 상회하나, 소득 하위계층에서는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공적제도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준비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득계층에 따른 노후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사회적 준비, 경제적 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분류하였음에도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적 노후준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중장년층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현실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에서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 하위계층에서는 노후준비의 모든 영역인 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준비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중위계층에서는 정서·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소득수준 상위계층에

서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소득계층별로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접근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 하위계층에서만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하위계층에 있어 경제적 준비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의 베이비붐 세대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높은 집단(소득 5분위)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매달 49만원 평균 20년 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소득 1분위)은 매달 5만원 평균 8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후설계 상담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전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저축과 연금 등의 재무 설계를 제공해야 하며, 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또한 노후소득보장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금 개시시기와 퇴직시기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노년기 진입이전에 경제적 어려움이 노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아울러 하위계층의 일자리 단절 현상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일자리 마련과 고용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수준 하위계층과 중위계층은 신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하위계층에서는 신체적 부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므로 우선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위계층의 노후준비 정도에서 신체적 준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을 보였으나, 하위계층에 있어 신체적 준비는 여전히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년기에는 생애과정 동안 누적된 자원과 경험의 차이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노인 집단의 건강차이는 소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House et al, 1994; 김진영, 2007). 건강불평등성에 대한 김진구(2011)의 연구에서 만성질환 여부, 활동제한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가 저소득층에서 불평등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하위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에 바람직한 영양관리, 규칙적 생활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기초건강측정 및 건강 상담 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위계층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관리가 이행되어야 하며, 건강한 식생활과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절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위, 중위, 상위계층에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으로 만족스럽게 느끼는 삶이 인간관계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장년층은 노년기에 접어들며 경험하게 되는 역할상실에 대비하여 새로운 역할 재정립과 안전한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중장년층은 노년기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여가 및 취미활동 영역에 관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예비노인 및 노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활동에 노년층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노년기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친밀감을 유지하고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원 중

심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 주민센터, 노인복지기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년층과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적지지 기반이 공고히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길어지는 노년시기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계층별로 중장년층을 분류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후준비의 주요 영역을 파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사 자료의 제한으로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노후준비의 영역별 요구 수준과 객관적인 충분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의 분류를 위해 가계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장년층이후의 가계는 가계총소득 뿐만 아니라 가계의 지출과 자산 등의 변인이 가계의 소득계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의 구분에 있어 다양한 자원을 고려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소득계층의 체계적 분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현재의 삶의 만족 뿐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횡단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삶의 만족으로는 노년기 삶의 만족을 파악하는데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실제 노년기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유진(2005).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고선강(2014). 중년층의 소득계층별 세대 간 경제자원이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79-101.
- 3) 국민연금공단(2010). 국민노후보장패널 : 3차 부가조사. 국민연금공단.
- 4) 국민연금공단(2011). 국민노후보장패널 : 4차 본 조사. 국민연금공단.
- 5) 권석만·민병배(2005). 노년기 정신장애. 서울 : 학지사.
- 6)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2), 62-76.
- 7) 김경미·류승아·최인철(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청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30(2), 503-523.
- 8) 김동배·정규형·이은진(2012). 노인평생교육 참여가 자이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3), 895-910.
- 9) 김미령(2013). 준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2, 257-287.
- 10) 김미혜(2010). 한국 노인의 생애주기별 성공적인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2), 697-715.
- 11) 김수봉(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47, 95-111.
- 12) 김용기·강성원·이동원·박준·문외솔·최홍(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 13) 김주성·최수일(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97-119.
- 14) 김주성·최수일(2010).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상담학회지, 39(1), 195-243.
- 15) 김진구(2011). 가족형태가 노인의 건강행위에

-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1, 35-55.
- 16) 김진영(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 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127-153.
 - 17) 류상영·강석훈(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 18) 박용두(2015). 노인의 생산 활동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20) 박창제(2011).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7(4), 1225-5866.
 - 21)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22) 보건복지부(2012).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 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보건복지부.
 - 23) 신승희(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 25) 양민희(2009).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삶의 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윤중주(1994). 노인과 사회참여 : 그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 14(1), 1225-1356.
 - 27) 이성립(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143-159.
 - 28)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46, 72-80.
 - 29) 이승신(2012).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5(4), 43-61.
 - 30) 이은정·이은영(2002). 고소득층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의류상품구매행동 특성 : 서울 강남지역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2(7), 57-69.
 - 31) 이정화(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32) 전귀연·배문조(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3-24.
 - 33) 정순희(2015).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한국FP학회, 8(1), 31-52.
 - 34) 차승은·한경혜(2003). 직업, 가족 그리고 중년기 신체적 건강 :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5(2), 33-60.
 - 35) 최숙희·송선희(2014). 노인의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12), 49-59.
 - 36) 최혜경(2000).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부양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10, 1598-1649.
 - 37) 최혜경(2011).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통한 한국 노인들의 소비자 욕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23-38.
 - 38) 최혜련(2012).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9) 통계청(2013). 2013 고령자 통계. 통계청.
 - 40) 통계청(2014).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2) 한수진(2004). 가계재무구조분석: 소득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43) 홍석태(2008).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4) Hoonyman, N. & Kiyak, H. A.(2005). Social gerontology :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 Allyn & Bacon.

- 45) House, J. S., Lepkowski, J. M., Kinney, A. M., Mero, R. P., Kessler, R. C. & Herzog, A. R.(1994).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aging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213-234.

- 투 고 일 : 2015년 9월 20일
- 심 사 일 : 2015년 10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11월 18일